

나주 음성문화축제, 천년 고도 매력 속 역대급 흥행

금성관 일원 4만5000명 발걸음... '캐치! 티니핑' 호응 음성 성내장 시전·취타대 퍼레이드 등 가족 콘텐츠도

‘제6회 천년나주목음성문화축제’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역대 최대 규모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금성관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 4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축제는 ‘천년의 봄, 나주목에서 흥(興)으로 피어납니다’를 슬로건으로 ‘흥미진진 흥이로구나! 아름다운 더해지니 기운 넘치는 한마당이로세! 열쑤!’를 주제로 열렸다.

시는 나주목 관아의 역사적 가치와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가족형 체험 콘텐츠와 수준 높은 역사 문화 공연을 결합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선보였다.

가장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캐치! 티니핑’ 가든과 싱어북쇼였다.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티니핑’ 캐릭터들이 등장한 공연은 행사장마다 환호성을 받았다. 금성관 앞 잔디광장에 조성된 캐치! 티니핑 가든도 뜨거운 반응

이었다.

캐치! 티니핑 가든은 오는 6월 14일까지 금성관 앞 잔디광장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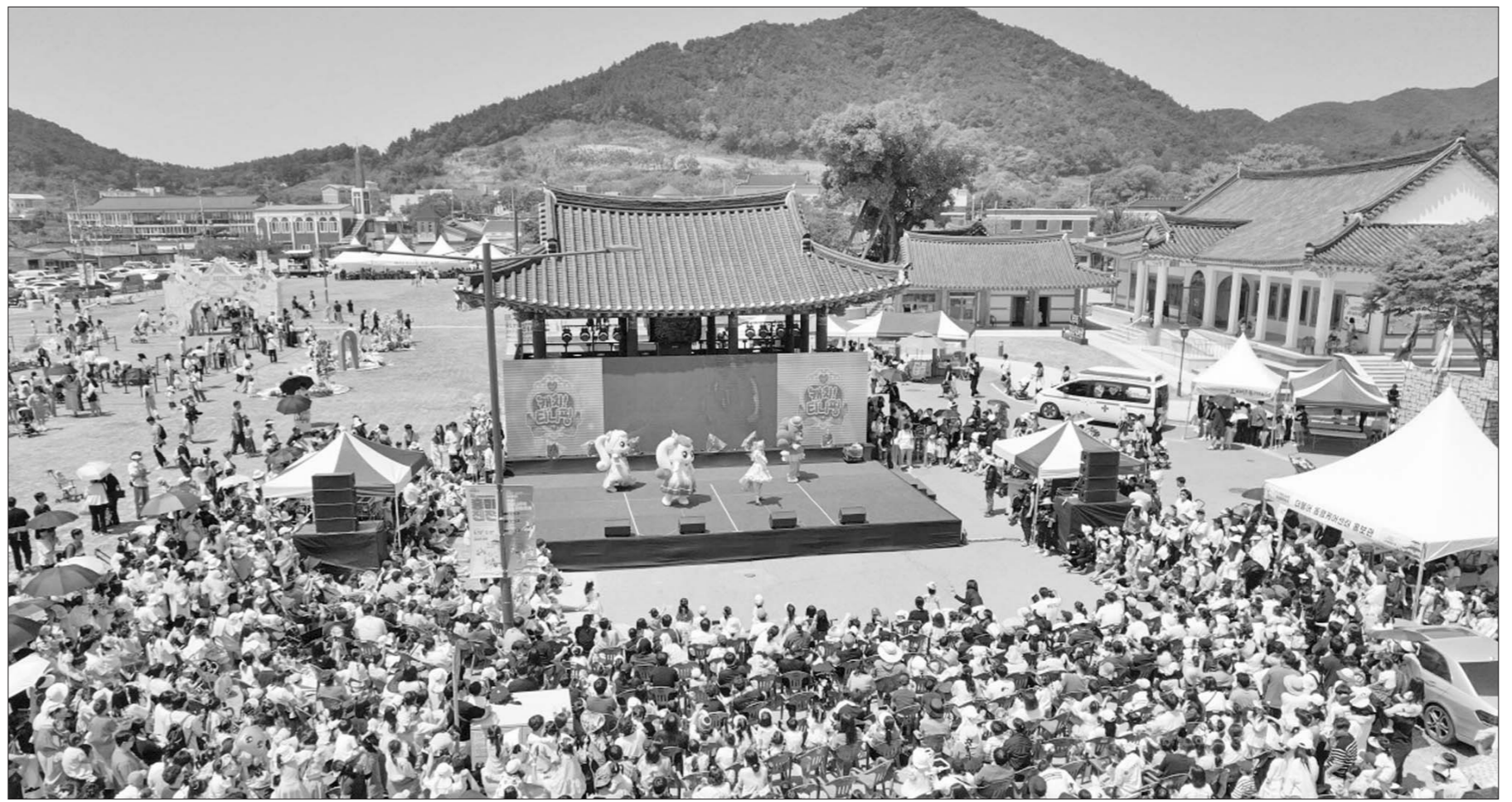
사매기길 일원에 마련된 ‘나주음성 성내장 시전(市廳)’도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호패 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 먹거리 장터 등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성문(영금문) 잔디공원에 조성된 ‘도심 캠핑’ 공간 역시 공연과 피크닉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콘텐츠로 마련됐다.

역사와 전통을 담은 공연 프로그램도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

축제 첫날 정수루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전통의상 한복쇼 흥미진진’은 나주의 역사를 3막 서사로 풀어냈으며, 특히 1막 ‘꿈꾸는 씨앗’ 무대에는 어린이집 아동들이 고운 한복을 입고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수문장, 나주성(城)에 서다’는 웅장한 취타대 퍼레이드와 수문장 교대식, 오위진법 사열, 원앙진 재현, 전라유영군 무예 시연 등을 선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6회 천년나주목음성문화축제’에 4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였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나주 동부·서부 줄다리기’는 풍물패의 신나는 응원 속에서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 하나로 화합하는 웅장한 장관이 연출됐다.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천년 고도 나주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누구나 찾아와 역사와 문화, 낭만과 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고흥스태이’ 도시민 226명 참여...농촌살이 효과 특특

1~6기 운영...연간 1억 경제적 파급 효과

고흥군이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 1기부터 6기까지 운영을 최근 완료했다.

‘고흥스태이’는 고흥에 관심을 갖고 여가·휴양·체험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과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참가자는 6기까지 총 226명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주 출신이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해 도시민의 귀촌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대당 평균 12명의 지인을 초대할 것으로 분석

돼 연간 800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고흥을 체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단기 체류 전입자는 38명(전입률 약 16.8%)에 달하며, 이 중 2명은 귀농귀촌으로 정착을 완료해 고흥스태이 프로그램이 단순 관광 유치를 넘어 실질적인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체류 기간 중 세대당 식비, 교통비, 지역 특산물 구매, 체험활동 등 평균 160만원을 소비했으며, 가족 단위 참가자의 경우 실제 소비액은 더욱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추산한 연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입주자 기준 7700만원, 지인 방문객 기준 5800만원으로 연간 총 1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태이’를 1기부터 6기까지 운영을 완료했다. 사진은 고흥스태이 체험프로그램 모습. 사진제공=고흥군청

군 관계자는 “고흥스태이는 단순한 체류 프로그램을 넘어 도시민이 고흥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인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gwangnam.co.kr

담양, 재생에너지 확산·경제 활성화

오늘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담양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담양농업관 대강당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마을 협동조합과 공동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남도 햇빛소득추진단장을 초빙, 햇빛소득마을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올해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협동조합이 공동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군민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으로 공모사업 준비를 지원해 보다 많은 마을이 혜택을 받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담양=이시우 기자 lss270@gwangnam.co.kr



영암군 서호면 송산마을은 최근 주민과 외지인이 뜻을 모아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송산사랑 매킨리 결성식’이 개최됐다. 사진은 송산사랑 매킨리 결성식 모습. 사진제공=영암군청

여수세계섬박람회 식음·판매시설 운영자 모집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기간 운영될 식음·판매시설 임대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89개소로 식당 23개, 마켓(판매시설) 38개, 푸드트럭 19대, 카페·편의점·기념품점 각 3개소다. 조직위는 이 가운데 81개 운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식당, 푸드트럭, 카페, 편의점, 기념품점은 각 5개 총괄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며, 마켓은 개별 사업자를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식당은 오는 26일까지 접수 후 6월 중 제1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푸드트럭은 29일까지 제1차 평가를 접수받아 6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카페와 기념품점은 다음 달 5일까지 입찰참가 등록 후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마켓은 27일까지 접수 후 공개추첨으로 선정된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홍중호 서울대 교수, 21일 장성아카데미 강연

기후위기 극복·미래세대 대응 전략 제시

장성군은 21일 열리는 제1232회 장성아카데미에 홍중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초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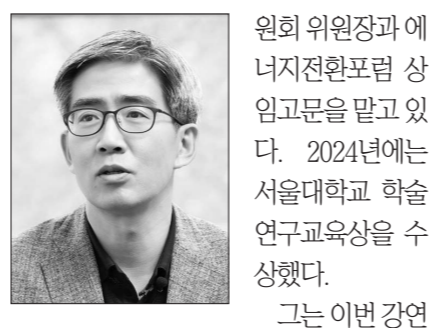
‘기후는 경제: 기후위기시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은 기후위기가 산업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마다 열린다.

오후 4시까지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이번 강연에 나서는 홍중호 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환경에너지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홍 교수는 기후경제분야 전문가로, 현재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



원회 위원장과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2024년에는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경제문제라 바라본다.

탄소중립시대 속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 등 관련 주제들도 흥미롭게 풀어낸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영암 송산마을, 외지인과 함께 ‘팬클럽’ 결성

소멸 위기 돌파...관계인구 형성으로 지속적 교류 추진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마을이 외지인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최근 영암군 서호면 송산마을에서는 주민과 외지인이 뜻을 모아 관계인구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송산사랑 매킨리 결성식’이 개최됐다. 이번 결성식에서는 참석자 간의 소개를 시작으로 향후 팬클럽이 나아갈 운영 방향이 공유됐으며,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 정겨운 자리가 마련됐다. 행사에 동참한 회원들은 일방적인 방문객

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마을 환경정화 활동을 비롯해 소규모 교류 모임, 송산마을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구 절벽 속에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송산마을은 이번 시도를 계기로 주민과 외지인이 함께 마을을 꾸리고 보존하는 사업을 지속해서 확장할 방침이다.

박신서 송산마을 노인회장은 “이번 팬클럽은 우리 마을을 중심으로 응원하는 이들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방문객과 주민이 이물감 없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서승용 기자 biz@gjdream.com

영광, 일반음식점 547곳 대상 자율위생지도

영광군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반값 할인 영광 심포 여행’에 따른 방문객 급증에 대응하고자,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자율위생 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자율위생 지도는 지역·주요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54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군은 업소 스스로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예방

중심 지도·점검과 함께 관광수용 태세 강화를 위한 친절환 응대 서비스 실적을 함께 강조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위생(위생모·마스크 착용) 준수,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덜어먹기 용기 사용 등이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